

## < 마리아의 노래 >

누가복음 1:46-50 / 새찬송가 32 (통일 48) 만유의 주재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위대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 1.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구원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비천해졌습니다. 이 죄의 무게는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를 한 없이 밑으로 끌어내려 바닥없는 어두운 구렁이에 끝없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구렁이는 하나님께 범죄 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입니다(벘후2:4). 이 어두운 구렁이가 바로 무저갱입니다(계9:1).

이는 정죄의 구렁이, 질병의 구렁이, 저주의 문제의 구렁이, 사망과 죽음과 지옥의 구렁이로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혹은 그 무엇의 힘으로 절대 헤어 나올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구렁이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 표현하였습니다(시40:1,2). 예레미야는 이 웅덩이가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하고 물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하였습니다(렘2:13). 또한 웅덩이와 달리 수렁이라는 것은 늪과 같은 것으로 내 스스로의 힘이나 다른 힘을 빌어서 헤어 나오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더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2.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악의 비천한 상태에서 건져 올리실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는 율법의 저주에 처했던 마리아는 그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체험하였습니다(눅1:46-48).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은 그의 사랑과 무한한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악의 중력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수한을 15년 더해 주셨고 앗수르의 공격도 다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사38:16,17). 히스기야는 죄악의 구렁이를 멸망의 구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과 구렁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게 됩니다. (눅1:49,50)

우리는 그 자비와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들을 당신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그 위에서 내리치시기 때문입니다(눅1:51,52). 이는 오직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위대한 능력이십니다.

### 3. 신앙의 발전단계의 마지막은 절대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순종입니다

신앙의 발전 단계의 마지막은 절대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부요케도 빈손으로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주권 가운데 좋으신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저 좋으신 분이 아니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교훈을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 2장~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교만한 죄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 번의 꿈을 꾸고 열두 달 후에 7년을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그의 정신이 되돌아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단4:33,34).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단4:35~37).

#### <적용&실천>

우리는 우리를 비천한 상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습니까?